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만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사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중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 길을 묻는 이에게



현대불교 제 305호  
서기 2001년 2월 7일 수요일 19

법공양 페이지

## 둘 아니게 굴리며 관하면害 없어요

스님: 또 한해가 지나가고 새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새해로 말미암아 모두 둘 아니게 공생, 공용, 공식으로 사십시오. 오늘은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질문을 하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말씀이든지 하고 싶은 말씀을 하되 하고 싶지 않다면 그냥 남의 얘기만 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체험했던 얘기를 간단하게 한마디씩 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자1: 스님 감사합니다. 특히 저는 스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그 감사함을 어찌 표현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스님께서도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따로 없다고 하셨지만 우리 중생들은 한달, 일년을 구분해서 한 달을 마감하고 한 해를 마감하고 또 새해를 시작하고 합니다. 이제 엄격한 의미에서 21세기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새해에는 우리 과거의 어둠과 혼란했던 그런 일들이 다 잘 해결되고 모든 국민이 편안한 마음으로 행복하게 사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특히 스님의 가르침이 널리 퍼져서 이 나라가 정말 복된 나라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그동안 감로의 법을 많이 설해 주셨는데 아둔한 저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해서 아직도 미망에서 헤매고 있습니다. 사실은 법회 때마다 많은 질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여쭙지 않는 것보다는 스스로 관해서 해답을 얻는 것이 훨씬 공부가 더 잘 되리라고 생각하고 지금껏 질문을 드리지 않았는데 그래도 알지 못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서 질문을 드립니다.

는 모셔다가 같이 살았다고 합니다. 얼마 살지는 못했으나 그렇게 했다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렇듯이 사람이 죽어도 그 원소는 꼭 남습니다. 우리가 채소를 심어 먹어도 씨앗은 꼭 남듯이 에너지는 남는다는 얘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공부를 해서 주장자로 화했다면 내 주장자를 나에게 줄 것이므로 내 주장자가 화하지 않았다면 내 주장자를 뺏아 올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 하셨습니까.

천도재를 모시고도 일년에 한번씩 제사를 모시는 것이 좋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상님께서 환생을 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눈이 어두워서 그 세계를 알지 못하지만 환생을 이미 했는데도 천도재를 지낼 때 오시는지 매우 궁금합니다.

그거와 같이 우리가 죽는다고 해서 아주 죽는 게 아니라 겁테기만 없어지는 거지 원소 자체는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원소 자체는 끝없이 가는 것이고 나의 영혼 자체가 일을 저지르면 모든 게 입력이 돼서 현실로 나오기 때문에 업이 있다, 업력이 있다, 유전성이 있다, 영계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영계성을 녹이려면 관화시라. 한번 관할 때마다 무너진다. 업력이 무너지니까 생각하기에 달렸다. 업도 없고 고도 없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달린 거라고 하는 겁니다.

### 죽어도 원소는 남아

▲스님: 옛날 어떤 집에 어머니는 노망했는데 아들이 죽었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가 해마다 아드님을 위해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정승의 집안으로 태어나서 아주 잘 살고 있는데 해마다 꿈에 어떤 노인이 부엌에 들어가서 일을 하시면서 상을 차려 놓고 정성을 드린다고 그 길을 좇아 그 노인 집에 가서 같이 공양을 하고 나오곤 했답니다. 20살이 넘도록 그렇게 해마다 꿈을 꾸면서 살았답니다.

우리 몸통이를 가만히 보십시오. 공생입니다. 생명들이 다 같이 더불어 하고 가지 따로따로 하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데도 같이 하지 않기 때문에 병이 생기면 잠막질이 나서 삶이 굳는 겁니다. 그리고 에너지가 막혀서 백혈이 되고 그냥 운동병들이 번성하는 겁니다. 유전성이 없어지질 않아서 그렇게 되는 거구요 영계성이 나오고. 이렇게 요만한 거 하나 가지고도 엄청 벌어지고 그렇죠. 그러니깐 우리가 그렇게 벌어지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그걸 없애기 위해서도 그렇고 우리 한 생각의 공덕을 쌓아서 해 놓으면 자식한테까지 그게 미친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부모가 그렇게 먹어 지어 놓은 것이 자식에게까지 내려가는데 그게 끊어지느냐 끊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항상 남아 있어서 은하계의 별성이 그냥 떨어져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원소는 남고 껍데기만 떨어져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게 가루가 돼서 없어지죠. 그러나 그 원소는 남으니깐 다시 옷을 입고 나오는 거나 같습니다. 은하계에도 별왕이 있어서, 별왕이 있어서 그 옷을 입히듯이 원소가 있기 때문에 옷을 입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돌아가신 부모라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자식이 죽었다고 해서 가볍게 생각하지 마시고 노인에 따라서 나쁜 인연이 있다면 나쁜 인연으로 인해서 같이 한 식구가 됩니다. 나쁜 식구가 인연이 됐으면 서로 고통을 하고 서로 고통을 주고 서로 싸우고 모두 미워하고, 문제가 생기면 바깥에 나가서 일을 벌여놓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관하는 것을 맨날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랬는데 꿈에 본 그 길이가 아주 눈에 선해서 생시에 자기가 찾아갔답니다. 꿈에 본 대로 그 날 찾아가니까 정말 밥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왜 오늘 꼭 이렇게 밥을 해 놓으시느냐고 물으면서 꿈에 꼭 여기 와서 밥을 먹고 간다고 얘기한 겁니다. 그 얘기를 들은 어머니가 하는 소리가 내 아들이 고생만 하고 죽었으니 다시 태어나다 하더라도 지혜로운 집에 태어나서 지혜롭게 살라고 제사 때마다 잊지 않고 죽는 날까지는 제사를 모시고 있노라고 하더라고요. 그 소리를 듣고서 "우리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나이가 먹도록 제사를 지내워서 내가 정승 집으로 태어나서 이렇게 사는구나." 하고는 그냥 거기서 눈물을 흘리고서 어머니가 해 놓으신 밥을 맛있게 나름대로 비벼 먹고선 그 길을 걸어오면서 한없이 울었답니다. 나중에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문제는 정신계의 자동적인 컴퓨터 같은 그런 역할을 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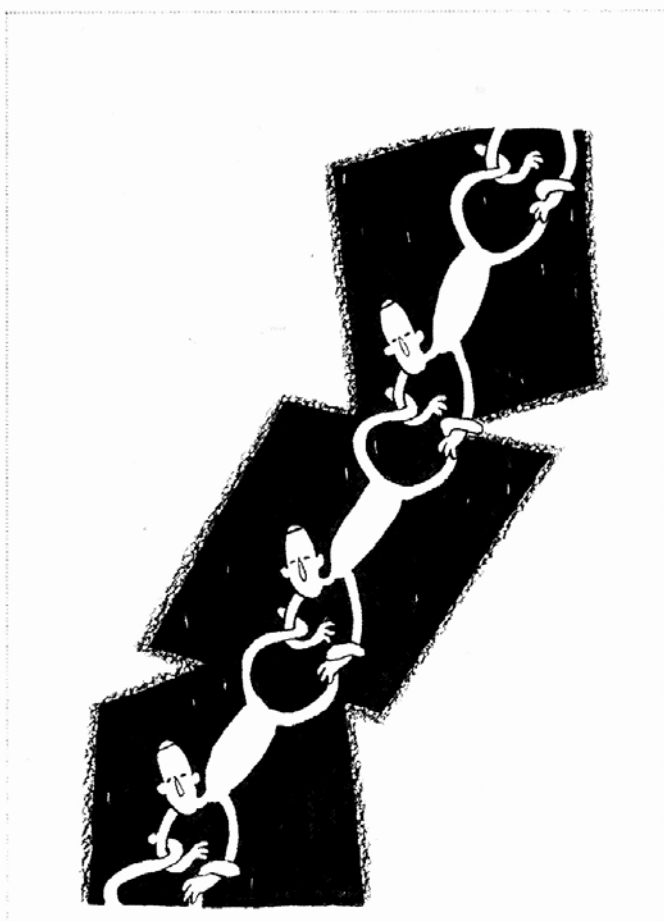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 정신계 자기가 물질계 자기 이끌어 나는 본래 쏘하니 빈그릇으로 살라

는 일입니다. 우리가 과거로부터, 어저께도 과거고 작년도 과거이지만은 과거에 잘한 거든지 잘못한 거든지 입력이 됩니다. 꼭 입력이 됩니다. 한마디를 잘 했으면 잘한 대로 입력이 되고 못했으면 못한 대로 입력이 됩니다. 입력이 되면 그 입력이 현실로 나옵니다. 그래서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잘한 거는 잘한 것대로 나와서 좋지만 못한 거는 못한 것대로 집안에 일이 생깁니다. 집안에 일이 생기니까 그 일을 생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반드시 관하시라는 겁니다. 어떠한 위급한 일이 앞에 생기겠다. 이거 큰일났는데, 꿈도 좋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문제가 생기는데 어찌나, 이런 생각이 들면 바로 "주인공 등신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 하고 관하시라는 겁니다.

### 생각을 좋게 내도록

여러분을 형성시켜서 화해서 태어나게 했으면 반드시 그건 주인이 이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냥 여러분 몸통이가 다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원소 자체가 바로 여러 본 몸을 끌고 다닙니다. 정신계의 자기가

물질계의 자기를 끌고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깐 잘 끌고 다니게 할려면 생각을 좋게 하시라는 거예요. 현재 사는 걸 봐서 이걸 절대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거기가 말간다고 되겠다 생각하지만, 될 수 있으면 내 생각을 좋게, 아무렇게 생각을 하시고 자꾸 이 생각 저 생각하시면 폭이 좁아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 고령이 일이 적당히 되고 말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그냥 뛰어 넘으세요. 뛰어 넘어서 좋게만 생각하세요. 우리가 흉탕물을 그냥 먹을 수는 없죠. 먹을 수 없으니깐 맑은 물로 만들어서 먹겠다 생각을 하시란 말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생각없이 생각하는 거고 또 힘이 없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것이 안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몸이 아프다, 뭐 암에 걸렸다 한다면 먼저 그냥 죽는다고만 생각들을 하죠. 그러나 몸 안에 들은 병 중세를 병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암이라고 이름을 지어 놔어도 너와 나와 둘이 아니라고 안으면 안는 대로 그게 소멸되게 되어 있습니다. 솟아오르게 되면 소멸되게 되어 있다는 말이 모두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걸 어디까지나 심성과학도 되면서 심성의학

도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좀 편리하고 편안하게, 자손들도 착하게 두시려면 조그만 거라도 몇몇하게 살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가정에서 만들어 나가신다면 아래의 자손들도 보이지 않게 아버지께서 생각하는 마음과 같아집니다. 일은 같지 않지만 생각하는 자체가 같아집니다. 같아지면 지혜롭게 남을 해치지 않고도 또 내가 손해를 안보면서도 남을 이익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생깁니다.

이럴 때도 있습니다. 가족 중에 한 분이 이복에 계시는데 영 돌아가셨는지 몰라서 제사를 지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하면 설사 살아 계시더라도 제사를 지내드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분이 배가 고파서 사시더라도 배가 부를 거라는 거죠. 여기에서 지내는 자식의 그 정성으로 부모가 배고프게 사실 거를 배고프지 않게 사실 수 있게 된다 이겁니다. 정신계와 물질계가 같이 동일하게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죽어야만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생일도 있고 제사도 있는 그런 이치입니다.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었답니다. 가족이 다 불에 타서 죽을 뻔했는데 다 살았답니다. 왜 살게 되었느냐 하면은 불이 나서 야간하던 그 날, 예전에는 먹을 게 귀하지 않았습니까? 나무를 뜯어다가 보리쌀을 뿜아서 떡을 해서 우리 집안 내에 살생이 없이, 우리 자식을 죽지 않게 해 달라고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 날, 제사를 지내고 나서 불이 났는데 그 자손들은 하나도 죽지 않고 그저 그릇들만 탔답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고 그 동네에서는 일대 전부 나무 물이라도 캐서 하다 못해 없으면 죽이라도 씹서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 그렇게 제사를 지냈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의심하지 마세요. 의심하면 안됩니다. 그저 요만한 결 정성을 드리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또 자식들한테 넘겨준다 하더라도 의심하지 마시고, 임제스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듯이 저 사람도 주인공이 있고 나도 주인공이 있는데, 너만이 그렇게 할 수 있다고 관을 하니까 자식한테도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나 절대 의심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의심하시면 누구를 믿습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믿으셔야죠. 못났든 잘났든 가난하든 부자든 자기를 자기 믿어야 합니다. 정신계의 보이지 않는 참 자기를 진짜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 자리를 진실로 믿으셔야 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나라도 돌볼 수 있게 됩니다.

▲질문자1: 잘 알겠습니다. 이미 돌아가신 조상님들께서 환생을 하셨더라도 천도재를 계속 모시면 그 분들에게 좋은 거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다음에 살생에 대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구상에서 살아가는 자연의 법칙에서 보려면 생명이 살아가는 법칙이 먹이사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플랑크톤에서부터 시작해서 아주 작은 고기는 플랑크톤을 먹고, 또 그 위의 고기는 더 작은 고기를 먹으면서 서로 먹고 먹히는 그런 먹이사슬의 고리가 형성되어서 자연이 이렇게 보존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먹이사슬이 끊어지면 자연이 파괴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곤충이 없어지면은

그걸 먹고사는 새 등이 살수가 없고 개구리가 없어지면 그걸 먹고사는 뱀 같은 것들이 살수가 없는데 우리는 자연보호를 하기 위해서 모든 생물들이 원활하게 잘 살수 있도록 자연의 법칙에 맡기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살생을 하는 것은 태고 때부터 우리 인간이 먹고 살아가기 위한 먹이사슬의 일환으로서 당연한 걸로 생각이 되는데 어찌해서 살생을 해서 안된다고 하는 건지 물론 저희들이 동물이 아닌 식물성을 먹고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스님께서도 나무도 풀도 다 생명이 있고 불성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넓은 범위에서 보려면 식물도 다 생명을 가지고 있으므로 먹지 말아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해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 업 되고 안 되는 도리

▲스님: 좀 지혜롭고 중부하게 생각하신다면 해답이 다 나옵니다. 먹지도 말아야 하고 안 먹지도 말아야 하고. 그러니까 먹기도 해야 하고 안 먹기도 해야 하는 양면이 다 있습니다 거기에. 왜 양면이 있어야 하나요 하면요, 고기로 살았다고 해서 잡아먹지 않는다면 고기로만 살아야죠. 또 사람도 현재 못나게 사는 사람이 죽지 않는다면 계속 못나게 살아야 돼요. 그러나 모든 게 화해서 돌아가는 이치가 있기 때문에 잘 살고 못 살고 잘 나고 못 나고 서로서로 바꿔가면서 살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공부를 한 분들은 먹으면 화해서 먼 모습으로 태어나게 되고 마음공부를 안 하고 그냥 그저 먹기 위해서만 취하는 사람이 먹을 때는 그 게 업이 된다는 말이지요. 살생의 업이 되는 겁니다. 그건 왜냐하면 생각을 남에게 이익하게 하지 않고 그냥 먹고만 있어서 먹었으니까 자기 자식들한테도 해롭고 자기한테도 해롭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마음공부를 한 분이 잠수시게 되면 약이 되고 그 영혼은 다시 화하게 된다는 얘깁니다. 그렇게 되는 동시에 아무렇게나 '먹어야지' 하는 생각으로만, 생각이 없이 잠수는 분들은 그 게 얼른 쉽게 말해서 살생의 업이 된다 이런 말이지요. 생각을 잘 하지 못해서 생기는 겁니다. 그걸, 생각을 잘 했다면 저 생명과 내 생명이 둘이 아니죠. 사는 생명에 대해서는 둘이 아닌데 둘이 아니면은 어찌해서 살생의 업이 되느냐. 둘이 아닌 까닭에 살생의 업이 되지 않는다는 얘깁니다. 바로 사람으로 자기가 화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한생각에 달려 있다. 한생각 하기에 달려 있고 나라를 건설하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고 짜부러지게 만드는 것도 한생각에 달려 있는 겁니다. 모두 생각들을 조금만 비틀어지게 하면 모두 비틀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구하면서 가는 것도 양면을 잘 믿고 갈 수 있게끔 해 줘야 할텐데 만약에 양면이 다 잘 믿고 가지 못한다면 문제가 생기죠. 그것이 지혜란 말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더 극단을 받고 더 이상하게 쫓기고 지혜롭지 못한 사람은 쫓기고 또 지혜로운 사람은 쫓기지 않을 수도 있고 또 지혜가 모자라거나 아니라 머리가 정말 잘 돌아가는 분들은 잘 돌아가는 반면에 오히려 반 이상이 밀린다 이런 소리죠. 그러니깐 그저 너무 잘 돌아가지도 말고 너무 못 돌아가지도 말고 그저 평균하게 넘어지지 마시고 정신계의 나와 물질계의 나 모습과 둘이 아니게끔 항상 굴리시면서 관하시면서 가시면 해가 없습니다. 절대. 건설

20면으로 계속

가까운 안위를 닦고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도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대행 스님과 수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1-470-3116)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AS인 288쪽  
값 6,000원  
여사준